


소개팅

☆ 20	역링크	토론	편집	역사	ACL
------	-----	----	----	----	-----

최근 수정 시각: 2023-12-22 13:06:41

분류: [사랑](#) | [행동](#)

 **사랑과 연애**

[펼치기 · 접기]

목차

1. 개요

2. 주선자와 그 역할

3. 사전에 알아야 할 것

- 3.1. 소개팅에는 멋진 남녀가 나오지 않는다?
 - 3.1.1. 긍정론
 - 3.1.2. 부정론
- 3.2. 주의 사항
- 3.3. 소개팅이 성공할 확률은 매우 낮다
- 3.4. 소개팅이 잘 들어오지 않는 이유

4. 소개팅 팁

- 4.1. 소개팅 잡기
- 4.2. 소개팅 준비
- 4.3. 소개팅 당일 분위기 이끌기
- 4.4. 만남 팁
- 4.5. 식사 메뉴 선정 팁
- 4.6. 데이트 코스 팁
- 4.7. 남자 주의점
- 4.8. 여자 주의점
- 4.9. 대화 주제 팁
- 4.10. 거절을 할 때는 확실하게

5. 소개팅 애프터

6. 기타

7. 관련 문서

1. 개요

누군가의 주선으로 남녀가 일대일로 만나는 일. ⇄ **한자어 소개(紹介)**와 **영단어 meeting**이 **결합된 말이다**. 비슷하나 구분되게 남녀 만남의 의미로 쓰이는 **미팅**은 다수 대 다수의 모임을 가리키는 표현으로 쓰이고, **맞선**은 결혼적령기의 남녀가 결혼을 전제로 만나는 일을 일컫는 말로 그 쓰임을 달리한다.

남녀의 성향이나 조건을 미리 탐색해 대충 비슷한 레벨의 남녀를 매칭시키는데, 서구권에는 거의 없는 문화이며, 유독 동북아권 특히 [한국](#)에만 발달해 있다.^[1] 남녀관계에서 지나치게 소극적인 한국 문화 때문에 제3자가 나서서 남녀를 연결하는 문화가 생겨난 것이다.

✓ 2. 주선자와 그 역할

과거에는 주선자가 대상 남녀가 만날 장소까지 주선해 주고 잠시 동석하여 각자 소개 및 대화를 잠깐 이끌어 주었다가 자리를 비우고 이후 둘이 만남을 이어가는 방식이 일반적이었다. 대략 2000년대 초반까지는 그런 패턴이었는데, 당시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 사진 전송 수단도 마땅하지 않았고, SNS도 없었으며, 카카오톡도 없어 초면의 남녀가 마땅히 연락을 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소개팅 대상남녀를 둘 다 알고 있는 주선자가 참여할 필요가 있었다. 1990년대 후반~2000년대 초반의 실험카메라 포맷의 예능 클립을 보면, 위와 같은 주선자 주도식 소개팅 장면이 자주 등장한다.

그러나 이후에는 점차 주선자의 역할이 축소되어 주선자는 둘의 연락처와 대략적인 신상까지만 제공하거나, 아예 연락처만 전달해 주고 이후에는 관여하지 않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그 이후는 남녀가 알아서 진행해야 한다.

주선자의 역할이 줄어들다 보니, 아예 주선자조차 남녀를 둘 다 알지 못하는 한다리 건너식 소개팅 양상도 늘어났다. 예컨대 A 남은 주선자 a의 고등학교 동창인데, 주선자 a는 회사 동료 b를 통해 b의 여고 동창인 B녀의 연락처를 받고 연결해주는 경우에는 주선자 역할인 a는 A와 b만 잘 알 뿐 정작 소개팅 상대녀인 B에 대한 정보는 한다리 건너서만 아는 식.

셀프 소개팅(줄여서 셀소)이라는 용어도 생겼는데, 주선자가 처음부터 아예 없는 소개팅이다.^[2] 보통은 소개팅 앱으로 셀프 소개팅을 하게 되며, 간혹 소개팅 앱이 아닌 타 커뮤니티를 통해서 소개팅을 하는 경우도 있다.

✓ 3. 사전에 알아야 할 것

우선 소개팅을 성공하기 위해서 미리 알아둬야 할 마음가짐이 있다. 요약하면 **너무 기대하지 말고 너무 절박하게 굴지도 말 것**.

✓ 3.1. 소개팅에는 멋진 남녀가 나오지 않는다?

사실 소개팅에는 어중간한 남녀가 주로 나온다. 매력 넘치는 연애권력 상위권의 남녀는 주변에 이미 매력있는 이성 많기에 소개팅에 굳이 나올 필요가 없고, 그렇다고 이성으로의 매력이 완전히 썩인 사람은 주선자 입장에서 소개 시키기가 꺼려지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 경우 서로에 대해 제대로 알 시간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며 단기간에 상대와 만날 것을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커플로까지 이어지기가 쉽지 않다. 결론적으로 즉각적으로 확인이 가능한 것은 외모이며, 상세한 상대의 성격이나 결점을 알기가 어지간한 사회부적응자가 아니면 티가 나지 않기때문에 소개팅에서 중요한 것은 결국 외모이다.

이 불평 섞인 멘트는 사실 소위 말하는 ‘눈이 높다’라는 의미로, 현대에는 외모지상주의가 보편화되고 외모, 내모, 정치력, 경제력 등 기준이 나날이 상향평준화(특히 SNS 등을 통해) 되어버린 결과물이다. 즉 과거에 비해 모든 사람들이 멋지다고 생각하는 남녀를 매체를 통해 접할 방법이 워낙 많아져서, 평범한 사람을 봐서는 그리 매력적이지 않다고 느끼는 수준에 이른 것이다.

‘멋진’이란 단어의 의미는 남녀에게 달리 해석되는데 주로 남자는 예쁜 여자를, 여자는 잘 생기고 키 크고 돈 많고 성격 좋고 센스 있는 남자를 칭한다. 완벽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종합 점수가 높으면 자신의 이상형에 가까운 사람이다. 한두가지의 비주류 장점, 아니면 주류지만 미약한 장점을 가진 대다수의 사람들은 종합점수로 칠때 100점 만점에서 50점대에서 70점대 수준인데, 어려운 점은 이런 사람들중 생각보다 많은수가 90점대의 사람을 원한다는 사실.

먼저 소개팅에 나오는 남녀를 외모, 내모, 정치력, 경제력 기준 최상위 남녀는 소개팅에 나오지 않는다고 보고, 심심풀이로 나온 사람은 허수로 제외할 때 대부분의 남성은 여성의 외모를 상당히 중시하는데, 상위 50%에 속하는 귀여운 여성은 소개팅이 아

니더라도 적극적인 대시를 받아 이미 상위 50%에 속하는 귀여운 남성과 연애를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고, 설령 소개팅 시장에 나오더라도 한두 번 만에 적극적인 대시를 받아 금방 품절이 되고 만다. 사전에 얼굴과 키 등 대략적인 정보를 교환하고 만남이 성사 되더라도, 소개팅을 줄곧 하고 있는 여성은 슬프게도 사진과는 괴리감이 있는 모습일 확률이 높다. 이는 소개팅에서 남자들의 성에 차지 않는 대상이 되고 만다.

남성의 경우도 키크고 잘생긴 경우 여자들이 주변에 많아 소개팅에 나오는 경우가 별로 없다. 여성에게 앞서 얘기한 여러 가지 종합적인 평가를 받으므로, 소개팅에서 상대방에게 이를 최대한 어필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언어 능력이 떨어지는 일부 남성들은 약간의 밀천이 드러나기도 한다. 단시간에 매력을 발산해야 하는 소개팅이란 시스템에서 사실 언어 능력이 취약한 남자는 자신을 잘 포장하지 못하거나 마이너스 요소를 드러내기 쉽다. 가령 자신의 관심사만 얘기한다거나... 대화가 끊기거나 상대방의 호감을 떨어뜨리는 불필요한 말을 하게 된다. 그 결과 여성은 '멋진' 남자가 아니라는 결론에 도달한다. (사실 주선자에 의해 비슷한 수준의 남녀가 만날 확률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즉 '멋진'은 생물학적 요인에 의해 다른 의미라 보이지만, 남자의 입장에서 '예쁜'으로 여자의 입장에서 '언어 등의 센스가 좋은 매너남' 정도로 대체될 수 있다.

▽ 3.1.1. 긍정론

멋진 남녀 중 이미 괜찮은 사람들은 소개팅 따위 안 하고 미리 연애를 하고 있을 확률이 높다. 마음만 먹으면 주변에서 항상 멋진 이성들이 계속해서 들이대기 때문에 소개팅에 나올 이유가 딱히 없다. 동아리, 동호회, 대학교, 회사 동료 등 멋진 남녀들이 선택할 수 있는 인맥의 풀은 매우 넓다. 따라서 소개팅에서 이상형을 예쁘고 잘 생기고 젊고 재력 있는 사람을 만날 것이다. 같은 기대는 별로 하지 말아야 한다. 이런 기대를 하면서 소개팅에 나가면 실패한다. 우연히 괜찮은 사람인데, 나이가 어리거나 연애 경험이 없거나 썩맥이라 이성을 못 만나본 케이스가 그나마 괜찮은 케이스라 볼 수 있다.

소개를 해 주는 입장에서도 사실 어느 정도 부족한 점을 감안해서 비슷한 급의 사람을 소개해준다고 보면 된다. 외모든, 성격이든, 종교적인 차이든 소개해 주는 쪽에서는 이런 문제들을 대체로 숨기니까 소개팅 하는 남녀들은 소개팅 전 최대한 정보를 확보해야만 한다. ⇨ 2012년 신문기사에서, 여자 입장에서의 불만은 '정말 괜찮은 사람은 소개팅에 안 나온다'(67.3%), '주선자는 눈이 높으면서 정작 별로인 상대를 소개한다'(39.8%), '소개팅 성공 여부는 만난 지 3초 만에 결정된다'(31.1%) 등이 많았다. 아무래도 여자 쪽에서 눈에 차지 않아서 거절하는 경우가 많다는 뜻이다.

다만, 시기상 봄에 들어오는 소개팅의 경우 그나마 괜찮은 상대를 만날 확률이 다른 계절에 비해 크다고 한다. 왜냐하면 봄에는 신학기의 시작, 또는 회사 등의 연수와 입사^[3]가 본격적으로 이뤄지면서 환경이 급변하다 보니, 연애를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고 결혼 적령기 커플들 중에 깨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늦가을부터 연말까지의 시기에도 괜찮은 사람들이 나올 확률이 큰데, 크리스마스와 연말 시즌을 앞두고 별로 연애 생각이 없거나 휴식기를 가지던 사람들도 연애 욕구가 솟아오르기 십상이며, 또 역설적으로 이때가 커플들이 많이 깨지는 격동의 시기이기도 하기에 (연말과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는데 설레지 않고 행복하지 않다고 느끼는 경우) 소개팅을 하지 않거나 할 수 없었던 사람들도 많이 나오기 마련이다.

그래도 가뭄에 콩나듯 괜찮은 상대가 소개팅에 나오는 경우도 없진 않은데, 역설적인 건 이런 상대들은 연애에 관심이 없는 초식계(초식남 또는 건어물녀)거나 소개팅 자체에 관심이 없다가 주위의 압력이나 주선자의 간절한 부탁으로 그냥 가볍게 나온 경우가 의외로 많다.

이런 초식계 케이스는 연애 초보자인지라 소개팅에서 일반적인 사람들과 다른 행동을 해서 마음에 안 들거나 깨질 확률이 매우 높다. 더욱 황당한 건 이런 사람들이 막상 소개팅에서 상대를 좋아해도 연애 초보자이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 할 실수를 평소보다 더 많이 해서 깨질 확률이 또 올라간다는 게 딜레마.

▽ 3.1.2. 부정론

하지만 이에 대한 반론도 있다.

1. 아무리 쿼카라 하더라도 여중, 여고, 여대에 직장마저 여초 직장을 갖게 된다면 현실적으로 주변에서 자연스럽게 남자를 찾기는 어렵다.^[4]
2. 어린 여성의 경우에는, 대학 졸업을 기점으로 촌티를 벗고 외모의 급격한 향상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나이가 든 이후에도 수험생활이 길거나, 학위 취득에 전념하다보니 외모관리에 소홀해지는 경우도 흔하다. 그런데, 소개팅 시장에 주로 나오는 여성들은 주로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다. 따라서 처음 보이는 인상만으로 실제로 그 여성이 계속 매력적 없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없다.
3. 소개팅 외에 이성을 만날 여건 자체가 안 되는 경우가 많다. 직장인의 경우 주변에 마음에 들지 않는 이성 밖에 없으며 **사내 연애**를 부담스러워 하는 경우에는 주변에 사실상 연애를 할 사람이 없는 셈이다. 이 경우 사실상 소개팅 외에는 이성을 만날 기회를 얻기 어렵다.^[5]
4. 동호회 등 외부 사교활동으로 만날 수 있지 않느냐는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외부 활동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성격인 경우 굳이 시간을 쪼개어 연애를 하기 위해 동아리나 동호회의 부수적 활동까지 하기를 원치는 않는 경우도 적지 않다. 또한, 여성의 경우 남성이 많은 동호회에 가입할 시 **여왕벌** 취급을 받는 것에 부담감을 느끼거나 혐오감을 느끼기도 한다. 반면에 남성의 경우 여초 동호회에 가입하는 것에 대해 여자를 밝히는 사람인 것처럼 오해를 받는 데 상당한 부담을 느끼기도 한다.
5. 이상의 점 때문에 동아리나 동호회 등 사교활동은 하기 원치 않고, 맞선 등 내놓고 결혼을 전제하는 만남은 부담스러운 경우 효율 측면에서 소개팅을 택할 수도 있다.
6. 연애 또한 사람과의 관계로서 일종의 **사회생활**이라고 한다면, 스스로 눈높이를 맞추어가는 과정은 불가피하게 발생한다. 다른 인생의 관문인 대입, 취직의 경우와 비슷하다고 보면 된다. 어렸을 때에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조금만 공부하면 **SKY**, 최악의 경우에도 **인서울** 대학에 간다고 생각하지만, 학년이 오르면 오를수록 원서를 내고자 하는 대학교 기준이 현실적이 되어가는 자신을 발견하듯이 연애 경험도 적고, 현실 감각이 적을수록 자신의 연애 대상에 대한 기준은 추상적이거나 비현실적일 가능성이 높다. 그런 상황에서는 현실의 이성 누구를 만나더라도 눈에 차지 않을 수밖에 없다.^[6]
7. 객관적으로 보기에 특별한 하자가 없는 남녀 중에도, 미팅이나 소개팅 자체에서 오는 긴장감과 재미를 즐기기 때문에 자주 소개팅에 나오는 남녀도 많다.

✓ 3.2. 주의 사항

소개팅 시장에 공급이 많아지는 시점도 있다. 남자든 여자든 처한 환경이 크게 변할 때 기존 연인과 헤어져 "솔로" 상태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대학생 때 오래 사귀 연인도 보통 대학 졸업 후 취업 직후~2년차에 많이들 헤어진다. 기관 연수원&기업 연수원에서부터 커플 브레이킹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 여성은 27 정도, 남성은 29 정도에 소개팅 시장으로 많은 진입이 있기에 이 시기 소개팅을 구하기가 쉽다. 또한 이 시기에는 좋은 매물(?)이 많이 나온다고 평가 받는다.

그리고 사회 생활에 익숙해지는 3~4년차에 연애할 만한 시간적 정신적 여유가 생기는 것이 보통. 아무래도 이 시기에 연애를 시작하는 경우가 많고, 연애에 관한 남녀 고민이 집중되기도 한다. 이 시점에 만나는 연인은 결혼할 확률도 높다. 즉 위 타이밍^[7]을 놓치면 소위 말하는 "멋진" 상대는 소개팅에서 희소해진다.

✓ 3.3. 소개팅이 성공할 확률은 매우 낮다

남자든 여자든 소개팅에 몇번 실패하면 자신의 조건이 남들에 비해 떨어지거나 부족하게 아닐까 자책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특히 이성 교제 경험이 없거나 적은 경우일수록 더욱. 하지만 소개팅의 타율은 굉장히 낮기 때문에 실패 횟수가 많다고 해서 크게 자책할 필요는 없다.

일단 내 마음에 드는 괜찮은 상대가 나타날 확률이 극히 적다. 보통 남녀가 결혼정보회사 회원에게 설문조사한 결과 애프터^[8] 성공률은 10명 만날 때마다 4명 정도였다. 그리고 애프터에 우선 성공한 4명 중 3명도 애프터 시기 몇번 사이에 돌려서 거절당하므로, 실제로 10명 소개팅을 받으면 보통 1명 정도가 사귀는 관계로 발전한다. 실제 유의할 부분은 결정사회원의 경우는 소개팅보다는 **맞선**에 가까운 만남을 가진다는 것이다. 즉 필터링할 것을 다 하고 양 당사자 모두 '그럴 듯하게 맞을 만하다'고 판단하거나 매칭 매니저의 상담을 받고 신중하게 만남을 시작해도, 1회의 만남에 그치는 경우가 과반이라는 것. 보통 이성 교제

의 단계는 **자만추**→**소개팅**→**맞선** 단계로 갈수록 결혼 고려에 가까워지고 따지는 조건이 까다로워진다. 결정사는 소개팅과 맞선의 중간 정도라고 볼 수 있다. 그런 단계에서조차 애프터 성공률이 과반이 안되니, 훨씬 가벼운 만남인 일반적인 소개팅의 경우는 더 이상 말할 것도 없다.

첫 소개팅에서 나름대로 성공적인 느낌을 받았다고 해서 상대가 바로 자신의 애인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그냥 한번 만난 사람일 뿐이다. 그러니 너무 절박하게 굴지 말라. 물론 그렇다고 처음 만나는 자리에서 '너 같은 거 전혀 아쉽지 않다'식으로 너무 빠대면 될 것도 안 되니 적당히 할 것. 이후에는 **소개팅 애프터**라는 관문이 또 기다리고 있다. 애프터는 보통 남자가 하지만, 여성 측에서 소개팅 자리가 끝날 때쯤 "조만간 봐요."라고 언급을 할 때도 있다. 남자가 식사비를 지출하는 게 일반적이므로 여성 측에서 생각이 있다면 다음에 밥을 한 번 사겠다는 의미로 보자고 한다. 그런 말이 오고 가지 않았다면 사실 힘들다고 보면 된다. 다음에 만날 약속을 구체적으로 장소와 시간까지 잡는 경우라면 일단은 **소개팅 애프터**를 위한 1차 시험은 통과한 케이스라 봐도 된다.

나이가 먹고 경험이 쌓여갈수록 소개팅 성공률은 낮아진다. 결국 소개팅에서는 어쩔 수 없이 상대방을 다각도로 판단하고 평가하게 되는데, 나의 취향과 선호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고, 상대방을 더 빠르게 파악할 수 있게 되면서, 이 사람이랑 연애를 할 수 있을지, 못 할지, 하더라도 잘 될지 안될지를 순식간에 결론내게 된다. 여기에 결혼을 생각할 나이라면 이런저런 조건들도 당연히 따지게 되니 성공률은 더욱더 낮아진다. 여러모로 소개팅은 큰 기대를 하지 않고 임하는 것이 정답이며, 개별 소개팅의 성패에 따라 일희일비하게 된다면 연애가 문제가 아니라 일상생활이 힘들어진다.

정말 연애가 절박하고 지금 가능한 방법이 소개팅밖에 없다면, 자신의 인맥을 총동원해서라도 독하게 마음을 먹고 물량으로 승부한다는 마음으로 실패에 개의치 않고 소개팅을 최대한 많이 확보하는 수밖에 없다. 그만큼 소개팅은 성공률이 극히 낮다.

사실 소개팅 자체가 타율이 높다는게 어불성설이고 오히려 **그쪽이 더 심각한 성격적 결함이 있다는 뜻**이다. 소개팅 성공률이 높다는 것은 남녀 가리지 않고 첫인상부터 매력적인 외모를 가졌으며 애프터 신청을 쉽게 받거나 역으로 여자쪽에서 애프터를 넣을 정도로 만남에서 좋은 인상을 주는 인물이라는 뜻이다. 그런 사람이 최종적으로 교제에 골인하지 못하거나 사귀더라도 금방 헤어져 다시 소개팅 시장으로 나와 루틴을 반복한다는 것 자체가 막상 사귀거나 썸 단계로 갔을 때 말도 안되는 결함이 있다는 뜻이다.

✓ 3.4. 소개팅이 잘 들어오지 않는 이유

소개팅에 나오는 사람들이 주로 본인 인맥 주변에서 애인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는 사람인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런 사람들끼리 쉽게 소개팅이 성사되는 것은 아니다. 다시 말해 **소개팅이 성사되는 것 자체가 중급자 이상 코스인 셈**. 앞에서는 연애를 **메이저리그**로 비유하고 소개팅을 **마이너리그**에 비유했지만, 막상 마이너리그도 프로급 선수들만 들어갈 수 있다는 것과 마찬가지로 소개팅 자체에도 틀림없는 진입장벽이 있다. 이는 소개팅을 통한 연애 성사 여부와는 또 별개다.

누가 봐도 결함이 없다 싶은 남녀는 보통 인기가 있는 편이고, 그런 남녀일수록 소개팅보다는 이미 자신이 맺고있는 관계의 영향 환경 내에서 짝을 찾을 가능성이 더 높다. 따라서 소개팅은 애초부터 상위 스펙이 아닌 남녀 간의 만남이므로, 잘 될 가능성보다 잘 되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다. 주선자 입장에서는 괜히 이상한 사람 소개시켜줬다는 욕을 먹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면 애초에 주선 자체를 하고 싶지 않는 심정이 드는 것이 당연할 것이다. 애초에 알아야 할 것이 은둔생활을 하거나 고의적으로 이성을 멀리하는 것이 아닌이상 **괜찮은 사람은 짝이 있다**는 전제이다.

주선자가 아무리 해당인물을 인간적으로 좋아하더라도 주선자 입장에서 **뭔가 결함이 있는 사람**으로 내심 분류 된다면 소개팅시켜 주길 꺼린다. 대학생 시절 소개팅 필터링 요인은 대개 '외모, 나이 (+학교)'이고 결혼적령기 시절 소개팅 필터링 요인은 '외모, 나이, 직업'인데, 이 3가지 중 뭔가 안 맞는 게 있다면 소개팅이 들어오기 힘들다.

특히 연애 허들이 비교적 높은 남성에게 비해 여성은, 소개팅 환경으로 물리는 것 자체가 특출난 외모 스펙이 아닌 경우가 많다. 애초에 그런 수준, 소위 '훈녀'라고 불리는 계층은 그냥 소개팅없어도 알아서 주변에 남자들이 대시가 들어온다. 설령 바깥활동을 자제하고 모임을 좋아하지 않는 성격이어서 아르바이트, 심지어 카페나 길거리를 돌아다녀도 헌팅이 들어온다. 따라서 굳이 소개팅에 목매지 않는다.

남성 기준 대략 상위 30~70% 수준 외모에서 오간다고 치면, 이런 경우에는 '연애경험'을 중요한 가중 요소로 본다. 연애경험도 없고, 그냥그냥 내세울 부분도 없는 썩먹 느낌을 준다면 아무래도 성격 파탄자 수준은 아니더라도 소개하기 꺼려지는 것이 사실이다. 10대~20대 초반 남성(군입대 전)에게 소개팅이 들어오지 않는다면, 당장 보이는 외모나 스타일이 확 잡아끄는 매력이 없을 가능성이 높다. 20대 후반 즈음에 직장인 남성에게 소개팅이 들어오지 않는다면 외모나 성격에 뭔가 큰 결함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 반대로, 직장인이 아닌 20대 중후반 남성에게 소개팅이 들어오지 않는다면 직업이 문제일 가능성이 높으니 괜찮은 곳에 **취업**을 하고 나서 다시 소개팅을 시도해보는 게 좋다.

30대 이상으로 넘어가면, 외모, 성격, 재산은 둘째치고 적당한 나이대의 소개 상대를 찾을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된다. 20대 여성의 경우 상대 남성의 나이에 민감한 경우가 많은데, 30대 이상이 되어서 이제 갓 사회 초년생이 된 20대 초반~중반 여성이 있는 집단에서 소개팅을 하려고 하면 소개팅 성사 자체가 안 될 가능성이 높다. 반면에 30대 중반 이상의 여성에게 소개팅이 들어오지 않는다면, 눈이 높아서 또는 **신데렐라 콤플렉스**와 관련된 상황일 가능성이 있다. 이런 종류의 결함들은 단순히 스펙상의 문제라기 보다는, 주선자 입장에서 '서로 모르는 사람 끼리' 어느 날 갑자기 붙여놓고 정서적 교감을 시도 하더라도 실패할 확률이 낮은 조합을 찾다보면 제외될 수밖에 없는 결함들이다.

주변 사람들이 아무도 소개팅을 시켜주지 않는 상황에서도, 보통 다른 사람들을 보면 어릴 때부터 알고 지냈던 동네친구나 누나, 동생 또는 학교, 동아리 등 주선자와의 관계가 그리 끈끈하지 않은 관계에서도 소개팅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 자신도 그런 일이 생기지 않을까 기대하는 경우가 있지만, 이런 경우에는 결함을 걸러내는 과정이 더 촘촘해지게 되므로 상기한 바처럼 주선자와의 관계가 원활한 경우에도 소개팅이 잘 들어오지 않는 사람이라면 소개팅이 들어오는 경우가 더 드물어진다. 그러니 주변 사람들에게 소개팅을 무리하게 요구하거나 해주지 않는다고 아쉬워하지 말자. 정말 괜찮은 사람이라면 이러한 요구없이 알아서 주변에서 이어주려 한다. 소개팅을 시켜줘도 주선자 본인에게 인간 관계 면에서의 손해가 없다고 확실히 판단되는 경우라면 이미 자신과 친밀한 쪽에서 먼저 소개팅이 들어올 확률이 높다. 처음부터 친밀한 주변인들을 건너뛰고 건너 아는 사람으로 부터 소개팅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엔 친밀한 사람들은 잘 알고있는 본인의 결함이 단지 잠시 걸러지지 못했을 뿐일 가능성이 높다. 평소 친한 관계일수록 조금이나마 상대적으로 막 대하는 경향이 있다면, 설령 소개팅이 들어오더라도 친밀한 관계 보다는 먼 관계에서 먼저 들어오는 경험을 하게 된다.

주선자가 일단은 주선을 해주겠다고 했지만, 나중에 한 3번쯤 물어봤는데 "알아보는 중이다, 괜찮은 남자/여자가 없다"는 대답이 돌아왔다면 그 사람은 **당신을 상대로 주선해줄만한 자신이 없는** 상황이라고 간주해도 크게 틀리지 않으니 적당히 포기하는 게 좋다. 주선자는 보통 남녀 인맥을 두루 갖추고 있는 인싸 성향의 인물인 경우가 많고 지인의 지인, 혹은 남자/여자친구의 지인까지 합하면 남녀 불문 솔로인 사람을 찾아낼 확률은 거의 100%다. 소개팅에서 성사되지 않거나 소개팅 전 이야기하는 단계에서 실패했다면 모를까 주선 자체를 해주지 않는다는 것은 주선자 본인이 적절히 '입구 컷'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봐도 무방.

따라서 그쯤 되면 더 이상의 요청은 그만두고 잠자코 있는 것이 오히려 도움 된다. 주선자도 본인이 관계를 파탄내긴 싫으니 적당히 돌려 말하는 것에 가깝다. 계속 징징거린다는 인상을 주게 되면, 운 좋게 소개팅을 시켜줄 생각이 잠시 들더라도 잠재적 주선자 입장에서 이 정도까지 눈치도 없이 평소에 연애를 위해 자신에게 징징대는 사람이라면 운 좋게 소개팅 상대와 맺어지더라도 그 이후에도 계속 이런저런 정서적, 물질적 애프터서비스를 요구하며 주선자를 지속적으로 피곤하게 만들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소개팅을 시켜줄 마음이 더더욱 사라지게 된다. 소개팅 언제 해줄거냐는 식의 요구는 반농담 삼아 흘리는 정도가 좋고 모든 종류의 농담이 그렇듯이 두세 번 이상 반복되면 그때부터는 부정적인 결과를 낳게 된다.

온갖 결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선자들이 욕 먹을 가능성 감수하고 소개팅을 시켜주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경우는 **이 사람에게 도움을 받았다, 이 사람을 소개해 주면 욕은 안 먹겠다, 이 사람이 인간적으로 좋다** 같은 경우다. 만약 주변에 자신과 비슷한 정도의 결함을 지녔음에도 불구하고 자신과 달리 소개팅이 들어오는 사람이 있다면 이런 경우가 아닌지 혹은 정말로 그 결함이 자신과 비슷한 수준의 결함인지 진지하게 고민해보는 것이 좋다.

인간관계를 엉망으로 해놓으면 어떤 집단에 속해 있더라도 소개팅이 안 들어오는 건 당연한 것이다. 사람 자체로 성격이 좋은 것과 관계를 잘 이어가는 사람이라는 것은 또 다른 이야기이므로, 스스로 그렇게 '엉망'은 아니라고 생각하더라도 정말 **인간관계**라는 측면에서 무탈한 교감을 맺고있는지 생각해보고 결점이 있다면 고치는 것이 좋다. 친구나 지인 관계에서 무언가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면 더 깊은 관계에서 문제가 더 생기기 쉽다.

소개팅이 안 들어온다고 절친하지 않은 주선자에게 소개팅 시켜달라고 조르는 것은 결코 피해야 한다. 소개팅을 통해 단둘이 시간을 보낼 연인을 만들 시도를 하기 이전에, 단둘이서 밥먹고 시간보내면서도 전혀 어색하지 않을 정도 사이인 잠재적 주선자를

만드는 것부터 선행 되어야 한다. 이런 친밀한 잠재적 주선자가 없는 사람이라면 먼 관계의 잠재적 주선자가 생기기도 어렵다.

애초에 소개팅을 시켜주는 것 자체가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번거롭고 귀찮은 일이다. 일단 자신의 인맥 중에서 누가 싱글인지를 파악해야 하고, 누가 이상형에 부합할지 고민해야 하며, 둘 사이에 소개팅 여부와 연락을 조율해야 한다. 자신의 인맥 중에 적합한 사람이 없으면 한 다리 건너서 소개팅 상대를 찾아야 하는데, 이는 더 번거로운 일이다. 그러니 내가 누군가에게 무턱대고 소개팅을 요청했는데 주선해주지 않는다고 섭섭해하거나 원망해서는 안 된다. 소개팅을 시켜준다면 당신을 최소한 나쁘게 생각하지는 않는 것이며, 귀찮음을 감수하고 알아봐준 것이니 감사하게 생각하자. 정말 친한 사이가 아니면 단기간에 두 세번씩 소개팅을 시켜주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고 한 명 시켜줘도 고마운 일이니 누군가 당신에게 한 명을 소개시켜 줬다가 잘 되지 않더라도 재차 소개팅을 요청하는 것은 자제하도록 하자.

▽ 4. 소개팅 팁

아무래도 모르는 사람을 만나는 것이고, 주선자와의 관계도 있기 때문에 주의할 것이 많다. [남자친구](#), [여자친구](#) 문서에서도 잘 설명되어 있지만 이성 간의 관계는 은근히 사회화가 이뤄지기 어렵고 딱 부러지는 답이 없다보니 경험이 적으면 적을수록 본의 아니게 평균 이하의 비매너로 낙인찍힐 위험이 크다.

이 항목에서 쓰는 주의점은 가장 기본적인 것을 최대한 객관성에 근거해 기록한다.

여기 원칙이 다 깨졌어도 둘 다 서로가 마음에 든다면 그 소개팅은 잘 되며, 반대로 원칙을 다 지키고 매너도 철저하더라도 한쪽이라도 상대를 매력적이지 않게 보면 그 소개팅은 파토가 나게 된다. 아무리 소개팅이 사바사의 영역이라도 기본을 못 지키면 파토날 확률이 급상승하므로 모르는 것보단 아는 게 낫다.

▽ 4.1. 소개팅 잡기

- (특히 남성의 경우) 동성한테 구하는 것이 더 좋은 편이다.

남자의 경우 남자에게 소개팅을 구하는 편이 낫다. 여자에게서 여자를 소개받게 되면 아무래도 객관성이 극히 떨어지기 마련이다.

반면 여자의 경우 남자에게 소개팅을 받는 것도 썩 나쁘지는 않다.

동성의 지인, 친구로부터 구할 경우 그 사람의 매력을 이성의 입장에서 판단할 수 있는 점에서 더 낫다고 볼 수 있다 (다만 동성친구가 연애 중이어서 자신이 허전하지 않은 상태여야 할수록 좋다.)

특히 이성의 외모를 많이 보는 경우 가급적 소개받는 사람과 다른 성별의 주선자에게 부탁하자. 예를 들어 본인이 여자이고 남자를 소개받는 경우, 여자 주선자에게 부탁하는 것이 좋다.^[9] 그 이유는 주선자가 동성의 외모에 보다 관대한 편이기 때문이다. 소개팅에서 불만이 나오는 이유도 이것이 크다. 물론 이것도 케이스 바이 케이스다. 직장동료나 상사, 선배들이 소개해 주는 사람들은 그들의 입장에서 참한 사람이므로 조심해야 한다. 사진을 보고 소개팅에 응할지 말지 미리 결정하자. 서로간에 돈 낭비 시간 낭비일 수 있기 때문.

- 소개팅 약속은 신중하게 잡자.

약속을 채 며칠을 안 남겨놓고 갑자기 파토내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면 본인이나 직계 가족이 얹힌 급의 갑작스러운 사건 정도의 중대한 상황이 아닌 이상 소개팅 상대와 주선자 둘 다에게 욕을 먹게 된다. 그리고 앞으로도 다른 소개팅 주선받기도 힘들어진다. 만약 상대가 느끼기에도 피치 못할 사정이라면 **반드시 상대와 주선자 모두에게 이유와 상황을 솔직하게 알리고**, 상대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다음 미팅 날짜나 시간을 파토날 날과 가깝게 대안을 제시하는 편이 좋다. 예를 들자면 갑작스런 공무나 회사 일로 토요일 오후에 어쩔 수 없이 못 가게 되는 걸 금요일에 알린다면, 대안으로 일요일 오전이나 오후는 어떨지 동시에 제안하는 식으로 조율해야 한다.

상식적인 상대라면 한 번(운이 아주 좋으면 두세 번까지) 연장이 통하지만 몇 번 반복되면 당사자에 대한 모든 신뢰가 깨질 테니 **다시 잡은 약속은 반드시 지켜라**. 왜냐하면 이렇게 갑작스러운 약속 취소와 변경은 [어장관리](#)를 하는 사람들, 또는 상대가 급속도로 싫어진 경우에 자주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상대의 불신을 사기 십상이다.

✓ 4.2. 소개팅 준비

- 60% 정도는 스타일링, [외모관리](#)가 결정한다.

볼과 몇 초 사진 보고 판단한 것이 실제로 5분간 이야기를 나눴본 결과와 일치할 확률이 60% 정도다.^[10] 결혼 적령기 소개팅이 직업과 재산에 심한 영향을 받는 것은 사실이지만, 최소한의 외모관리가 없으면 아무리 능력이 좋아도 이성적 매력을 어필하기 힘들다. 반대로 말하자면 능력을 충분히 갖추고 최저치의 외모 기준만 넘기면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뜻이니 최소한은 하자. 자기 자신이나 가족에게 판단을 맡기지 말고 또래 이성, 또래 옷 잘 입는 친구에게 객관적인 평가와 코치를 부탁해라. 추가로 면도/피부관리/청결(냄새 등)을 신경써줘야하고, 필요하면 다이어트도 해라.

- 뚱뚱한 사람은 좋은 인상을 남기기 어렵다.

정말 안타까운 표현이지만 소개팅에서 제일 기피하는 게 뚱뚱한 사람, 지나치게 마른 사람, 불결한 사람이다. 그중에서도 당연히 뚱뚱한게 최악이다. 뚱뚱하더라도 그걸 만회할 수 있는 매력/인상이 있으면 상대가 다이어트하면 만나주겠다는 식으로 해피엔딩이 되는 경우가 있지만, 뚱뚱한 것에 관대한 이성은 별로 없다. 근면한 현대인 기준에서 자기관리를 못 한다는 말이 되므로 기피하는 사람이 많고, 외모 기준에서 탈락이다. **식사량을 줄이고 운동해라.** 이것은 연애가 아니라 소개팅 이기에 필요한 것이다. 소개팅으로 연애를 하려면 첫 인상이 엄청 먹고 들어가니까.

- 첫 인상을 최대한 호감으로.

연애 경험 없고, 썩맥인 것과는 상관없다. 부족한 사람들끼리 만나므로 그 정도는 서로 감안하기 때문이다. 상대방이 내가 마음에 들어 호감을 가지면 무슨 이야기를 하든 잘 통한다. 내가 마음에 안 든다면 무슨 이야기를 하든 별로라고 느껴지고, 빠르게 자리를 뜨고 싶어진다. 상술한 적절한 외모관리와 스타일링이 필요하고, 적어도 이성이 싫어하는 비호감 요소가 무엇이었던지 차분히 복기해보는 것만으로도 [자기계발](#)에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이다.

- 정보를 많이 얻어가자.

소개팅을 할 땐 이야기 주제를 위해 최대한 정보를 많이 얻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 나이대 이성이 대략적으로 좋아할 만한 취향에 대해서 대략적으로나마 이해하여 두고, 스스로 흥미가 있다는 부분을 어필하면서 대화를 이끌 수 있다. 다만 그 정도가 지나쳐서 [맨스플레인](#)식의 지나친 일장연설이 되는 것은 통제하여야 한다. 또한 상대 개인에 대한 정보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으면 대화에 공감하기 쉽다. 물론 그 정보를 미리 얻었다는 것을 상대에게 절대 이야기하지 않는 것은 기본. 주선자를 통해 상대의 정보를 미리 알거나 SNS를 통해 취향에 대해 미리 알아보는 방법이 있다. 이렇게 습득한 기본 정보를 통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다수의 화제거리를 탐색하고 나가면 대화를 진행 방향을 잡아나가는 데에 큰 도움이 된다. 그러나 사적인 것이나 상대방이 민감하게 받아 들일지도 모를 부분을 SNS 등에서 봤다는 걸 말했다간 스토크로 몰리거나 그 자리에서 판이 깨지기 쉬우니 상기한 바대로 철저히 조심해서 미리 알아봤다는 티를 내지 말자. SNS를 통한 정보수집은 대략적인 상대의 성향을 파악한다는 목적만 두고 구체적으로 상대방이 갔던 장소, 사용하는 제품, 읽은 책, 본 영화 같은 정보를 직접 입에 올리며 대화의 물꼬를 억지로 트는 것은 좋지 않다. 어차피 대화 주제를 취미쪽으로 옮기다 보면 자연스럽게 나올 정보고 공통점이 있다는 정도로 호기심을 불러 일으키는 수준이면 충분히 유용한 정보이기 때문이다. 간혹 자신이 상대를 위해 그만큼 노력했다는 의미로 긍정적인 반응을 바라고 정보 수집 과정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걸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

- 만남 전 대화 걸기.

대부분의 연애관련 커뮤니티에서 갑론을박이 심하게 발생하는 지점이다. 일단 연락처를 받아 통성명을 하고, 만날 날짜와 장소를 정한 뒤에 소개팅 당일이 되기 전까지는 며칠간의 여유가 있을 때가 많다. 상대에 대한 정보도 없는데 자꾸 메시지를 보내기는 부담스럽고, 그렇다고 아무 메시지도 보내지 않고 약속날에 처음 말을 떼자니 너무 서먹할 것 같다는 애매함이 고민의 원인이 된다. 갑론을박이 발생하는 모든 주제가 그렇듯, 이 또한 애초에 모범답안이 없는 [사바사](#)의 영역이다. 만나는 날 대화를 집중하고 만나기도 전에 부담스러운 인사치레를 하지 않길 원하는 사람이 있는가하면,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보아 만나기 전 태도에서 최소한의 성의를 요구하는 사람도 있다. 그 사람의 성향을 처음부터 완전히 파악하지 못하는 이상 정답은 확정할 수 없는 셈이다. 따라서 가장 좋은 방법은 상대의 대응에 맞추어 대화하는 것이고 쓸데없이 분위기 취해서 오버하지 않는 것이다. 상대가 선연락을 거의 하지 않는데, 매일 같이 연락을 해오거나, 만나지도 않았는데 지나치게 호감을 표시하면 당연히 부담스럽고 첫 만남 전부터 호감을 이끌기 어렵다. 반대로 상대가 안부를 성의있게 묻고 있는데도 단답형으로 답변하는 식으로 무성의하게 대응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호감을 이끌기 어렵다. 만나기 전의 대화이므로 최소한의 관심과 기대를 갖고 있다는 점만 가볍게 표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좋다. 주선자가 자리에 참석하지 않는 방식이 늘어나면서 소개팅 전 연락 그 자체가 장벽이 되는 경우도 많다. 특히 이성 경험이 부족한 경우 대체 어떻

게 연락을 시작해야 하나 막막하기가 쉽다. 소개팅 어플 코코아북에서 통계로 정리한 기사가 있는데, 한 번 분석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 기사 링크](#) 가장 기본적인 것은 너무 가벼워 보이거나 개념 없어 보이지 않는 것. 의외로 이 기본을 못 지키는 사람도 많다고.

✓ 4.3. 소개팅 당일 분위기 이끌기

• 절대로 늦지 말자.

첫 만남 때 이러면 일단 [첫인상](#)부터 먹칠을 하고 시작하는 거다. 인간 관계에서 첫인상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더 이상 말 할 필요가 없을 정도. 1분이라도 늦을 것 같다면 늦게 되는 이유를 분명히 밝히고 미리 양해를 구하는 것이 필요하고, 양해를 구했어도 늦게 되었다면 처음 인사할 때 미안하다는 표현은 꼭 해야 한다. 나중에 상대가 들었을 때 납득할 만한 이유가 있는 지각이라도, 사전 연락 없이 15~30분 이상 늦으면 상대가 아예 떠나버리는 경우도 흔하므로, 해명하면 충분히 받아들여지겠지 하는 안일한 생각은 금물이다. 지각해서 소개팅이 아예 파토난 경우 그 후에 쏟아지는 비난과 후폭풍은 향후 다른 소개팅의 유무에도 영향을 미친다. 과거에는 여성의 경우 정시에 맞추기보다는 일부러 조금 늦게 가는 편이 낫다는 이상한 통념이 있었는데, 지금은 거의 통용되지 않는다. 다만 갑자기 단장을 하고 나가려 하다보면 생각보다 시간이 걸려 늦게 되는 경우가 많다 보니, 사전에 충분히 준비할 시간은 충분히 확보해 두자. 15~30분 전에 도착해서 상대방보다 먼저 왔다면 미리 착석하고 옷 매무새를 점검하며 장소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탐색하는 편이 심적으로 안정되고 소개팅의 진행도 훨씬 매끄럽다. 미리 사전 정보 수집으로 마련한 소재들로만 대화를 이끌어 나가는 것은 한계가 있고^[11] 기본적으로 대화는 그때의 상황에 맞게 소재를 찾아나가는 것이 좋으나 그럴 정도로 스킬이 좋지 않다면 소개팅 장소 안에서라도 어느 정도 '신선한' 소재를 미리 찾아두는 것도 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그러니 늦으면 늦은 만큼 손해이고 일찍 가면^[12] 어느 정도는 이득이다. 20대들간의 소개팅에서도 지각은 금기 사항이지만 특히 30대가 넘어 진행되는 소개팅에서 지각은 절대 금물이다. 이 연령대의 사람들은 대부분 사회 경험과 연애 경험이 쌓일 만큼 쌓였기 때문에 상대의 5분, 10분 지각에도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기본 개념이 없는 사람으로 단정지를 가능성이 상당하다.

• 이야기를 하려고 하기보단 상대의 이야기를 많이 듣는 것만으로도 성공이다.

가장 좋은 방법은 상대의 관심사가 무엇인지 파악하여 이야기를 끌어내는 것이다. 예를 들어, 동물병원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을 본다는 정보가 있다면, 그 사람은 아무래도 반려동물에 대해 정보가 많고 평소에도 관심을 많이 가질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그렇다면 그에 관한 궁금한 소재를 미리 준비해서 가볍게 질문을 던지고 관련한 이야기를 듣는 것으로 대화가 원활히 이어지게 된다. 이야기가 잘 이어지지 않는다면, 스스로 사전 준비나 순발력이 부족하지 않은지 생각해봐야 한다. 호감을 주는 대화는 어디선가 멋진 말을 많이 준비해오는 일장연설이 아니라 상대의 그날 스타일이나 기분, 말투 등에서 그날의 공기를 빠르게 읽어내고 그것만으로도 편하게 이야기를 끌어내는 편안한 대화 쪽에 가깝다.

• 자아도취되지 말고 상대의 반응, 분위기를 살피라.

소개팅을 나가면 상대가 말할 기회는 안 주고 혼자 주절주절 자아도취돼서 이야기하다가 소개팅 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소개팅은 자기 자랑이나 학술세미나가 아니라 상대를 소개 받고 서로 이야기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말이 청산유수로 줄줄 이어지지 않더라도, 항상 상대의 표정이나 분위기를 생각해서 무슨 말을 해야할지 한 번 더 생각하고 내뱉는 것이 중요하다. 일례로 한 카이스트 대학생은 [간호사](#)와 소개팅하면서 [엑스포다리의 철근이 왜 안 끊어지는지](#) 설명했다, 소개팅녀는 중간에 도망갔다고 한다. 남성의 경우로 바꾸어 예를 들자면, 상대 여성이 처음 만났을 때 자신이 잘 알지 못하는 명품이나 화장품 브랜드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브랜드의 신상은 며칠에 나오고... 식의 이야기를 끊임없이 한다면, 속으로 '뭐 어찌라고'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보통일 것이다. 아무리 자신이 흥미를 가지고 재미있어 하는 분야라 하더라도 상대가 알기 어려운 분야인 경우에는 첫 대화 소재로는 피하는 것이 좋다. 상대가 흥미를 가질지 잘 모르겠는 경우에는 상대의 반응을 보아 가면서 그 화제를 이어갈지를 생각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좋다.

또한 소개팅을 위해 자신이 노력한 부분들을 이야기 하는 것도 금물이다. 경우에 따라서 상대방에 대한 질책이나 노력배틀이라도 걸어오는 것처럼 여겨질 수 있다. 기본적으로 소개팅 자리는 서로 '원래 어떤 사람인지 보여주는' 의미인데, '내가 사실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닌데 당신 때문에 이렇게 내가 노력해서 포장했다'라는 뉘앙스의 이야기는 결코 도움되지 않는다. 간단하게 풀어서 써놓으니 누가 저런 바보 같은 이야기를 할까 싶지만, 노력한 자기 자신에게 도취 되거나 대화의 소재가 떨어져서 옷을 어떻게 샀다느니 머리를 어떻게 했다느니 이 장소는 어떻게 알아 냈다느니 하는 이야기를 해버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소개팅에 익숙하지 않은 자신의 순수함이나 소진함으로 어필될 수 있지 않을까 착각하는 경우인데 도움되지 않는다. 택시를 탔는데 갑자기 기사가 "제가 좀 순수해서 오늘 아침 손님을 위해 운전 연습을 엄청 했어요"라고 말한다

고 생각해보자. 결론적으로 "저 사람 괜찮다" 고 느껴질 정도로 좋은 인상, 말을 잘 들어주고 대화가 잘 통하는 편안한 분위기, 맛있는 식사 이 3가지만 지켜도 할 일은 다 한 것이다.

- **상대가 마음에 안 들어도 매너는 지키자.**

이것은 소개팅 이전에 사람 대 사람으로 만날 때 아주 중요하고 기본적인 것이다. 너무 마음에 안 들어서 대놓고 무시하고 싶더라도 소개팅 자리를 만들어 준 주선자를 생각하라. 당장 눈 앞의 상대는 앞으로 안 볼 수 있어도 주선자는 계속 봐야하기 때문이다. 간혹 서로 간에 매너를 잘 지키면 설령 사귀진 않아도 이성친구로서 계속 알고 지내는 경우도 생기는 수도 있다. 그러나 그런 경우는 드물고 무엇보다 주선자에게 '인간관계의 매너가 팽인 인간'으로 찍혀서 다음 소개팅 길이 막히는 것은 피해야 하므로, 행여라도 '애랑은 친구조차 되고 싶지 않으니 막 대하자' 같은 생각을 하고 그걸 실천으로 옮기는 일은 피해야 한다. 그리고 설령 결정사 소개팅이라고 하더라도 대놓고 매너를 안 지키는 사람에겐 매칭매니저들이 좋은 배우자감을 잘 소개시켜 주지도 않고 보너스 소개팅도 안 넣어준다.

✓ 4.4. 만남 팁

- **허기진 상태에서 만나는 건 별로 좋지 않다.**

배고플 때 힘들고 기분 나쁜 건 인간 본성이라, 사람이 부정적으로 되기 쉽고 좋은 분위기로 데이트하기 힘들다. 살 찌 보이지 않으려고 며칠 전부터 식사를 줄이거나, 직전에 굶고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오히려 마이너스일 경우가 많다. 우선 배를 채우거나, 아예 간식을 사와서 대화와 데이트를 진행할 것. 또한 긴장한 상태에서 익숙하지 않은 데이트를 하려다 보니 체력/정신소모가 빠른 걸 감안하자. 생각보다 빨리 허기진다. 카페 등에서 만났다면 상대의 간식취향을 물어본 후 가벼운 다과를 함께 주문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다.

- **상대를 리드하고, 웃기려고 하는 강박에서 벗어나자.**

웃기지도 않은데 억지로 웃기려고 하는 것, 리드도 어설프면서 남자답게 나서봐야 어색하고 불편하기만 하다. 그냥 평소처럼, 나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자연스럽게 보여주는 게 어설프게 하다가 비호감으로 찍히는 것보다 낫다. 애초에 만들어진 모습으로 이어가는 인연은 길게 가지 못한다.

억지로 남의 생각에 자신을 끼워맞추지 마라. 이야기를 잘 들어주기만 해도 편안하고 매력있는 사람, 대화가 잘통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된다. 그리고 서서히 알아갈 생각을 해야지, 조급하게 단기간 승부를 보려고 했다가 망치는 사람들이 많다.

- **첫 만남엔 대화를 자연스럽게 많이 할 수 있는 코스가 좋다.**

소개팅 경험이 적은 사람이 제일 저지르기 쉬운 실수인데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 안 정해놓고 나가면, 고민하다가 처음 만났을 때 2시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정말 영화만 보다가 보낼 수 있다. 서로의 관심사가 겹치는 지역, 풍경이 좋은 지역, 자연스럽게 분위기를 잡으면서 걸을 수 있는 지역이 좋다. 변화가는 보통 교통이 편하고, 먹을 만한 맛집이 많으며 식사-카페로 이어지는 동선을 큰 고민 없이 짜기 매우 쉽다는 장점이 있지만 사람이 지나치게 북적여 대화하기 힘들거나 심한 경우 주문 대기 시간 때문에 분위기를 망치는 경우가 흔해진다. 일장일단이 있다. 반대로 변화가가 아닌 지역은 조용하고 분위기가 있는 곳을 찾기는 쉽지만, 접근이 어렵고 동선을 잡기가 어렵다.

따라서 장소를 정할 때에는 **조용하고 차분한 분위기가 될 수 있는 곳을 고르되, 잘 모르는 장소라면 반드시 사전답사를 해보자.**^[13] 경험이 적은 사람이 가장 하기 쉬운 실수는, 인터넷 검색이나 SNS를 통해 가게의 사진과 추천글만 보고 장소를 정하는 것인데, 아무리 인테리어가 좋고 식사가 맛있는 곳이라도 사람이 지나치게 많은 식당의 경우에는 소개팅 장소로는 최악이다. 약속시간과 비슷한 시간대에 사람이 많은지를 반드시 파악해봐야 한다. 또한 예약석과 비예약석을 나누는 식당의 경우 정말 사람이 없는 식당이 아니라면 예약을 미리 해 두는 것이 필요하다. 애프터면 영화관은 괜찮지만 처음엔 서로에 대해 알아가며 대화하는 게 중요하다. 차라리 30분 커피 한 잔 하는 게 더 이미지에 좋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날 영업 중단이거나 정기휴일일 수도 있다.

- **더치페이를 강요해서 분위기를 깨뜨리지 말 것, 식사속도를 맞추는 것.**

더치페이를 하지 않으면 비매너라는 인식이 있다보니 강박에 시달린다. 칼같이 무조건 더치페이를 따지면 사람이 너무 계산적으로 보이면서 분위기를 깨먹기 일쑤다. 서로 호감이 있고 괜찮다는 생각이 들면 분위기를 깨먹지 않는 한에서 누구 한쪽에서 내도 이상할 건 없다. 오히려 상대가 마음에 들었다는 신호니까. 요즘은 다시 만날 핑계를 주지 않으려고 먼저 계산하는 경우도 있으니 주의하자. 여성들 사이에선 오히려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 먼저 더치페이를 요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 모르는 집은 피하자.

소개팅 장소를 정하기 어려우면, 본인이 익숙하고 잘 아는 동네로 초대하는 게 낫다. 여기에 상대의 출발하는 곳이나 이동 수단을 미리 배려해서 가장 접근하기 편한 장소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면 좋은 인상을 줄 수 있다. 상대가 처음 소개팅하는 사람에게 주거지를 구체적으로 알리기 꺼리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대략적으로 편한 위치 정도만 언급하는 식으로 장소를 협의해나가는 것이 좋다. 그렇다고 놀것도 없는 촌으로 부르지 말고, 데이트하기 적절한 장소를 찾을 것. 아무래도 실수가 생기기 쉬운 만큼 이미 가 봤던 집, 주변의 추천을 받은 집 위주로 선택하는 게 좋다. 마음도 편해서 긴장도 덜하고, 길찾고 고민하느라 버리는 시간도 적다. 데이트 코스를 적절히 짜고 상대방에게 맞춰주면, 상대도 나를 그만큼 챙기는구나, 나한테 잘보이려고 신경썼구나 하면서 호감이 생긴다.

- 웬만하면 예약하자.

자리가 없어서 오래 기다려야하는 곳은 예약을 해 두는 쪽이 좋은데, 단, 상대가 뭘 어떻게 먹을지 모르므로 메뉴가 정해지고 나면 그때 몰래 예약을 해두는 것. 맛이 아무리 좋아도 인테리어가 나쁘면 싫어할 확률이 있으니, 유경험자에게 추천을 받는 편이 낫다. 더운 날씨에는 에어컨이 잘 작동하지 않고 후덥지근한 식당은 피해야 한다. 가급적 에어컨이 닿는 자리에 앉고, 구석에는 가지 않는 게 좋다. 경우에 따라 예약 자체가 안되는 타입의 식당이 있는데, 피하거나 혹은 약속 시간보다 일찍 도착해서 미리 자리를 잡아놓는 게 좋다. 이상의 점들을 미리 확인하기 위해서 조금 더 일찍 출발해서 사전답사를 해 두거나, 리뷰 내용을 꼼꼼이 확인해보는 것도 중요하다.

- 미리 정보를 교환하고 나가라.

키에 자신없을 경우 '키가 xxxcm인데 괜찮냐'하고 주선자를 통해 물어보는 게 낫고, 외모에 자신없을 경우 사진 교환을 하고 나서 나가는 게 낫다. 왜 이런 절차가 필요하냐면, 이 두 가지가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 **밥 시켜놓고 만난 지 10분 만에 나가버리는 여성**도 간혹 있기 때문. 괜히 기분 잡치고 돈까지 버리게 된다. 물론 이 경우는 상대의 예절이 심히 결여된 극단적인 경우이지만, 해당 항목의 중요성을 보이는 일화라 할 수 있겠다. 예절이 있는 경우라 해도 이 두 가지가 마음에 안 들면 애프터 확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돈 낭비를 줄이려면 이런 절차가 필요하다. 간혹 말빨로 어찌 해본다는 사람있는데 말빨로 되는 수준이면 소개팅이 아니라 일반 취미 모임에서 만나는 게 성공률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높다.

✓ 4.5. 식사 메뉴 선정 팁

서로가 잘 아는 동네에서 만났다면 상대가 가고 싶어하는 곳에 따라가 주는 게 둘 다 편하다. 상대방도 생각을 해 왔을 것이고 먹고 싶은 게 있을 것이다. 그러나 상대가 결정장애이거나 소극적인 경우 메뉴 선택에 부담을 느껴 **마법의 단어**인 '아무거나'를 외칠 때가 훨씬 많은 것이 문제. 상대가 가고 싶은 곳을 제시하지 못할 경우에는, 우선 상대가 잘 먹지 못하는 메뉴를 선택지에서 배제하고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한 다음에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하는 것이 좋다.

나중에 친해지면 같이 이것저것 먹으러 다녀도 괜찮지만 사귀는 게 확정될 때까지는 메뉴에도 조심에 조심을 거듭하는 쪽이 좋다. 음식의 맛이 없거나 식당 분위기가 좋지 않으면 소개팅에 오는 악영향이 매우 크고, 반대로 음식이 맛있고 분위기가 편하면 서로 기분 자체가 좋아지고 진행이 훨씬 매끄럽다.

- 상대방의 입맛을 고려해서 무난한 음식을 고르자.

음식 종류는 **파스타**, **피자**, **스테이크**, **샐러드** 같은 양식~**경양식** 종류가 제법 무난한 편이다. **일식** 계열 횃집이나 깔끔한 스시도 괜찮은 편이나, 회전초밥은 컨베이어벨트에 신경이 팔려 대화에 집중을 못 하니 피하자. 어느 정도 고급진 **한정식** 계열도 (먹는데 손이 많이 가는 메뉴들이 아니라면) 괜찮고, 반찬이 다양하고 호불호를 덜 타기 때문에 상대의 식성을 몰라도 그럭저럭 맞출 수 있다. 퓨전식이나 중국 요리집도 조용하고 깔끔하며 분위기가 있는 곳이면 나쁘지는 않다. 배가 많이 고프지 않다면 샌드위치나 샐러드 등이 어우러진 **브런치** 류의 깔끔하고 간편한 식사를 1차로 하면서 이야기하고, 다시 2차를 가는 것도 대안.

- 상대방의 입맛 뿐만 아니라 자세도 신경쓰자.

치마 입은 소개팅녀라면 음식점에서 좌식(신발을 벗고 바닥에 앉아 먹는 것)과 입식(의자에 앉아서 먹는 것) 중에 선택할 수 있을 경우 좌식으로 가면 안 된다. **본의 아니게 치마 속을 보여주게 될까 봐** 불편한 자세를 잡고 앉아야 하므로 다리가 저려서 불쾌해하기 쉽다. 만약 좌식으로만 가야 할 상황이라면 처음부터 다른 곳을 가든지, 그것도 힘들다면 치마 위에 천이나 술을 덮을 수 있도록 챙겨줘서 점수를 따도록 하자.

- **불판집은 가급적 피하자.**

불판 쓰는 구이집은 (가격을 막론하고) 둘 다 적극적으로 좋아서 곳이 아니라면 피하는 게 좋다. 소개팅을 하면 아무래도 여자 쪽에서 잘 차려입고 오기 쉬운데, 머리카락이나 옷에 냄새가 배거나 고기 기름이 튀면 불쾌해하기 때문. 특히, 더운 날씨에는 더더욱 피해야 한다. 어쩔 수 없이 불판집을 가게 되었을 경우 임시 방편으로 종업원에게 손님용 앞치마를 빌려 달라고 부탁해서 여자에게 건네주는 방법이 있기는 하지만, 소개팅 식사는 첫 만남 식사 자리인 만큼 서로에게 잘 보여야 하기 때문에 여자 성격에 따라 앞치마를 착용하는 것을 내키지 않아 할 수도 있다.

- **상대에게 집중하기 어렵거나 품위없어 보이는 식사는 피하자.**

뼈를 발라 먹어야 하거나 손에 들고 먹어야 하는 메뉴는 추천되지 않는다. 상대에게 집중하기 힘들고 번잡하므로 첫 만남에선 피하는 게 좋다. (찜닭, 돼지갈비, 생선 종류) 어느 정도 친해진 다음엔 상대 음식의 뼈를 발라준다든지 하는 식으로 오히려 자상함을 보여줄 수도 있지만, 상대와 알기도 전엔 이런 건 무리다.

보쌈집의 경우 고급스러운 집이면 관참은 편이지만 친해지기 전엔 조심해야 한다. 일단 고기와 야채를 손에 들고 쌈을 하느라 집중력이 흐트러지기 쉽고, 재료를 떨어뜨리고 옷에 묻히는 등 번잡한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더구나 보쌈을 큼직하게 싸면 남녀 불문하고 **하마**처럼 입을 짹 짹 벌리고 먹어야 할 텐데, 남성은 몰라도 여성들은 이성 앞에서 하마처럼 입을 크게 벌려서 먹지로 집어넣고 **악어**처럼 꾸역꾸역 씹는 모습을 보이는 것만으로도 부정적인 느낌을 주기 때문에 싫어하는 경우도 많다. 만약 갓을 경우 보쌈에는 **마늘** 및 **김치** 등 냄새가 나는 반찬이 같이 나오므로, 식사가 끝나면서 줄 수 있도록 미리 **껌**을 준비할 것.

- **첫 만남에 뷔페는 좋지 않다.**

빍스나 애슐리, 계절밥상 같은 중고가 이상의 뷔페도 나쁘진 않고 번잡하지 않은 시간이라면 갈 만 하나, 의외로 신경써야 할 점이 많으므로 소개팅 초기엔 별로 좋은 장소가 아니다. **상대와 식사 속도를 비슷하게** 맞추고, 자리를 비울 때는 반드시 함께 가거나, 장시간 음식을 담으면서 **상대를 혼자 방치하지 않도록 하자**. 두 사람 모두 자리를 비울 때 가방이나 귀중품 등이 도난당할 위험이 있으므로 미리 챙겨두는 것은 필수. 만약 상대의 식사속도를 모르거나 다른 사람과 비슷하게 맞추기 힘들다면 뷔페는 피하는 편이 좋다. 뷔페식 샐러드바의 경우도 위와 비슷한 이유로 만남 초기엔 그다지 좋지 않다.

- **너무 자극적이거나 매운 음식은 피하자.**

떡볶이나 매운 닭발이나 마라탕 같은 땀이 뻘뻘 나는 음식은 그 먹는 모습이 아름답지도 않거니와 서로에게 땀냄새를 풍기게 될 수 있으니 피하자.

다른 주의점으로는 고춧가루가 많은 음식이다. 남녀 불문하고 이빨 사이에 빨간 고추가 낀 상태로 말을 하면 소개팅 분위기에 영향을 크게 끼친다. 이런 음식은 피하는 게 좋고, 만약 먹었을 경우엔 화장실 등에서 거울을 보며 이빨 사이를 반드시 체크하자.

- **멋과 맛이 어느 정도 갖춰진 제대로 된 식당에 가자.**

구내식당, 푸드코트, 염가 프랜차이즈(김밥천국 등)의 너무 저렴한 음식점은 되도록 피하고, 상대가 꼭 가고 싶어하는 경우도 잠깐 둘러서 음식만 빠르고 가볍게 먹는 정도만을 권한다. 초호화판 음식으로 된장남 된장녀 이미지를 주는 것도 문제지만, 첫만남부터 싸구려 음식과 난장판인 분위기에서 첫 번째 식사를 상대와 먹는 건 너는 그 정도 가치밖에 안 된다는 무언의 홀대가 될 수도 있다.

- **너무 번잡하고 시끄러운 장소는 피하자.**

뭐 어느 정도 고급스러운 식당치고 안 붐비는 데가 어디 있겠냐마는, 최소한 어린애 딸린 부모들이 자주 찾는 집은 절대로 가지 마라. 커피지옥이 따로 없다. 같은 이유에서 유동인구가 많은 장소의 음식점이나 학생들이 많이 찾는 번잡하고 시끄러운 음식점은 피해야 한다.

- **지저분한 곳은 피하자.**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 위생이 불량한 더러운 음식점은 피해야 한다. 남자들끼리는 편안하게 가는 기사식당, 연탄구이집, 위생을 신경쓰지 않는 노포 같은 곳은 아무리 맛집이고 유명하더라도 피하는 것이 좋다.

✓ 4.6. 데이트 코스 팁

만남 → 동반으로 즐길 수 있는 무언가 → 식사 → (카페 →) 근처 길거리 같이 걷기 정도가 가장 평범하다. 하지만 각자의 노력에 따라 좀 더 괜찮은 코스를 잡을 수도 있다.

- 서울: 가로수길, 청계천변, 한강공원, 서울숲 등.^[14]

- **자신의 대화 스킬 수준에 따라 시간 조절을 하자.**

이야깃거리는 다 떨어졌는데 같이 있어야 어색함만 더할 뿐이다.

요즘에는 소개팅 밥값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오후 3~4시, 오후 7~8시 같은 애매한 시간대에 만나 카페에서 커피만 마시는 경우도 있다. 커피를 마신 뒤 마음에 들면 밥이나 술 등 2차를 가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나와서 "뭐 타고 가세요?"하고 헤어지는 식. 다만 유의할 점은 이러한 방식은 소개팅을 어느 정도 해 본, 중급자 정도에게 어색하지 않게 통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이다. 특히 잠깐 봤는데 별로 첫 인상이 좋지 않은 경우, 각자 출구전략을 생각하게 되는데, 시간을 짧게 조절한 경우 어떻게 변명을 하려고 해도 성의없어 보임을 피할 수 없게 된다. 어색한 사이에서 굳이 밥을 먹지 않아도 되니 좋다는 여자도 있겠지만, '예의가 없다' 혹은 '나에게 호감이 없나 보다'라고 생각하는 여자도 있으니 주의할 것. 만남을 짧게 가져가더라도 무례하게 보이지 않는 것은 은근히 어려운 일이므로, 소개팅 경험이 적다면, 통상적인 순서대로 밥-커피(차)-산책 정도로 최소한의 시간은 쓴다고 생각하는 것이 좋다.

- **장기간 걷는 야외 코스는 신중하게 생각하자.**

여성은 집에서 나오는 시간부터 저녁 식사 시간까지 계속해서 하이힐을 신은 경우, 아무리 앉아있는 시간이 많다 하더라도 장시간 신었기에 발이 상당히 불편하다. 그런 데다 근처 산책을 한다면 상대방, 분위기에 집중하기가 힘들다. 정말 어쩔 수 없이 걸어야 된다면 미리 편하게 신고 오라고 귀뜸해 주자. 플랫폼슈즈의 경우에도 힐보다야 낮겠지만 쿠션이 거의 없어 발이 쉬이 피곤해진다. 그런데 보통 여성이 차려입었다고 생각하는 복장이면, 걷기 편한 운동화를 매칭하는 경우는 드문 편인 것이 문제. 결국 많이 걷는 코스는 피하는 것이 낫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처음에 소개팅코스를 짤 때는 특별히 귀뜸이 없다면 애초에 많이 걷는 코스는 선택지에서 빼거나, 다른 코스를 쉽게 생각할 수 없다면 어느 정도 걸어서 이동할 것이라는 점을 미리 양해를 구해서 편한 신발로 나오게끔 적절히 유도하는 것이 좋다.

- **봄 가을 환절기나 추운 계절에는 장시간 걷는 야외 코스는 삼가자.**

여성의 옷 중 블라우스, 원피스 등 예쁘고 격식차린 옷은 얇아서 방한성이 매우 떨어진다. 이런 옷을 입고 저녁에 야외에서 오래 산책하는 것은 고역이다. 게다가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미세먼지 뽀뽀하는 날이라면... 날씨가 쾌적할 경우엔 야외에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거나, 차가 있다면 드라이브를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식으로 시간을 보내면 좋다.

✓ 4.7. 남자 주의점

- **철저한 계획하에 나가야 한다.**

여자가 연고가 있는 지역에서는 여자가 적당한 곳을 알아보는 것이 불문율이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대개 남자 쪽이 알아 보게 된다. 하나에만 집착하지 말고 대안을 여러 개 준비해 놓을 것. 하필 그날이 휴일이거나 만석이거나 하는 일은 생각보다 많이 일어난다. 그래서 의외로 변화가는 적절치 않은 선택.

- **복장**

외모관리에 신경을 쓰는 게 좋다. 정돈하고 셔츠에 핏이 되는 청바지만 입어도 된다. 중요한 것은 '성의없어 보이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 그리고 정돈되어 보여야 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남자의 경우 튜리닝에 삼선 슬리퍼를 신고 소개팅 장소에 나온다면, 어느 여자도 그를 "나와의 소개팅에 성의를 보였네?"라고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결혼적령기 소개팅의 경우 결혼 상대로서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 남자는 정장을 입으면 필요 이상으로 격식을 차린 것으로 생각해 여자 쪽에서 부담 가질 수도 있으니, 셔츠와 슬랙스를 적절히 조화한 캐주얼 복장을 하고, 머리는 깔끔하게 다듬는 짧은 스타일이 낫다. 그리고 콧털, 수염도 말끔히 잘 다듬는 것을 추천한다.

- **더치페이**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여성들은 소개팅에선 남자가 사야 한다고 생각한다. 물론, 사바사로 칼같이 더치페이를 하려는 여성도 없지는 않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여성이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처음부터 기대하지 않는 것이 좋다. 오히려 여성이 거절의 뜻을 표현할 때 강하게 더치페이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소수의 못난 남성들이 밥을 얻어먹고 사귀어주지도 않는다며 뒷담화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

- **태도**

소개팅 자리에서는 더 자연스러운 태도를 가지고 자신감 있게 행동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아무리 소중한 소개팅 기회에, 마음에 드는 여성과 함께 하고 있더라도 좋은 친구를 만든다는 마인드로 임하는 것이 좋다. 첫 소개팅 자리에서 모든

것을 보여줄 필요는 없다. 최대한 자연스럽게 행동하고 잘 웃고 자신의 매력을 자연스럽게 드러내면 된다. 소개팅 여성에게 의례적 칭찬은 하되 과도한 칭찬은 자제하고 최소한의 호감을 드러내는 것이 좋다. 소개팅은 남녀 공히 **밀당**의 소용돌이에 가장 빠져들기 쉬운 조건이므로 밀당을 잘 활용하는 것이 좋다. 물론 상대가 밀당을 싫어하는 성향이면 역효과만 나니 확실하게 파악되지 않으면 그냥 진지하게 대하여 공감하고 경청하는 쪽이 낫다. 상대방이 본인의 외모나 첫인상이 썩 마음에 들지 않다가도 대화를 하다보면 태도를 보고 맘이 바뀔 수도 있다.

▽ 4.8. 여자 주의점

• 복장

얇전한 스타일의 정장^[15]이나 원피스에 청순해 보이는 화장이 무난하다. 그런 복장이 안 어울린다고 생각되면 최소한 여성스러워 보이게 입고 나가는 게 좋다. 결혼적령기 소개팅에서조차 간혹 친구 만날 때처럼 자유분방하게 대충 걸치고 나가거나 여성의 취향과 너무 동떨어진 개성적인 패션^[16]으로 나가는 경우가 있는데 자제하자.^[17]

• 장소

남자가 정말 매력적인 사람인데 음식점만 자기 취향이 아니라면, 소개팅 분위기를 파토내기보다는 'OOO 먹으러 가자'고 유도하는 게 낫다. 남자가 정말 매력없는 사람이라 거절하고 싶는데 예의상 만나보는 상황이라면, 밥 대신 카페에 가서 차를 마시고 헤어지면 돈을 덜 쓴 만큼 욕도 적게 먹는다.

• 더치페이

여성의 더치페이는 여러가지 의미로 해석될 수 있으나 소개팅은 어디까지나 초면인 남녀가 서로를 알아보는 자리이므로 기본적으로 본인이 먹은 것은 본인이 낸다는 마음가짐으로 임해야한다. "제거 제가 낼게요."한다고 남자가 여자를 나쁘게 생각할 일은 전혀 없으며^[18] 상대가 낼 생각이었다면 알아서 내지 말라고 하므로 자존심 세운다고 계산시 가만히 뒤에 서 있는다던가 하는 행동은 지양하자. 저녁을 얻어 먹었으니 커피는 자기가 산다고 하면 좋은 인상을 줄 수 있다. 아예 밥을 먼저 사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후식은 상대방이 자연스럽게 사며 좋은 분위기를 유도할 수 있다.

•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끝까지 예의는 차리자.

마음에 들지 않았다고 밥을 먹고 난 후 바로 헤어지거나, 안부 문자를 무시하는 행동은 사람 대 사람으로서의 예의에 어긋난다. 마음에 들지 않는 경우 거절의 표현은 확실히 하되, 상대방의 호의는 충분히 고려하여 답장을 하도록 하자.

▽ 4.9. 대화 주제 팁

• 일반적인 대화 주제

- 취미^[19]
- 좋아하는 것^[20]
- 이상형
- 연애관

• 피해야 할 대화 주제

- 예전 연인과의 비교
- 키, 학력, 연봉이나 재력, 집안: 상대방에게 질문하다가 속물 취급당하지 말고, 주선자에게 물어보거나 대화 중 흘러지는 정보들로 추론하자.
- 정치관: 이것도 같은 성향이라는 것을 알고 만났을 경우에는 호감을 키울 가능성이 높고 이만한 대화주제도 없다. 정말 이 부분이 인생에서 중요하다면 차라리 주선자에게 솔직하게 이야기 하고 같은 사람을 소개받는 것이 좋다.
- 종교: 같은 종교끼리는 오히려 종교관 이야기가 호감을 키워줄 가능성이 높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서로 어떠한 종교를 가졌는지 파악하지 못했을 경우에** 종교 관련 언급을 가능하면 피하라는 것이다.

- **학술:** 아카데미한 얘기는 로맨틱한 분위기에 해가 된다. 그래도 관심사가 맞는다면 이만한 화제가 없으니 마냥 나쁘지는 않다.

✓ 4.10. 거절을 할 때는 확실하게

소개팅에서 가장 중요하지만 그만큼 가장 어려운 점이다. 위에서 언급되었듯, 소개팅에서 만난 인연이 연인 관계로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적다. 양측이 서로 마음에 안 든다면 알아서 자동으로 관계가 끝나게 되기에 차라리 낫지만, 한쪽은 호감이 있는데 한쪽은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문제가 된다. 남자든 여자든, 자신에게 호감을 갖고 있는 상대방을 거절한다는 게 너무 미안하고 쉽지 않긴 하다.^[21] 그렇지만 거절을 명확히 하지 않고 애매한 태도를 유지한다면 그게 가장 상대방에게 피해를 끼치는 일이고 상황을 나쁘게 만드는 짓이다. 주선자 눈치 때문에 거절을 잘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마찬가지로 궁극적으로는 애매하게 질질 끌다가 나중에 거절하게 되면 그게 더 주선자에게 피해를 끼치는 행동이다.

소개팅은 **자만추**랑 다르게 인위적인 만남이다.^[22] 같은 집단에서 알게된 이성한테는 거절을 확실하게 하지 못하는 상황이 이해가 되지만,^[23]

소개팅에서 만난 이성은 앞으로 연인 아니면 남남이 될 사이이다.^[24] 대놓고 연인이 될 것을 가정하고 만난 사이이기 때문에 서로간에 이루어지는 연락이랑 만남에 있어서 연인이 되거나 말거나 라는 사이라는 걸 항상 인지해야 한다. 호감이 있는 상대방 입장에서 상대방이 자신과 연인이 될 생각이 없다면, 더 이상 연락이나 만남을 이어갈 이유가 전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상대방이랑 잘 될 마음이 없는데 상대방은 그렇지 않고 나에게 계속 연락하는 등 호감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면, **직접적으로 이러이러한 이유가 때문에 당신과 더 이상 이어나갈 수 없다**라고 말해줘야 한다. 가장 부담스럽지만 가장 확실하고, 한편으로는 상대방을 가장 배려하는 방법이다.^[25] 그 이유를 말할 때 솔직하게 말하든 돌려서 말하든 그건 상황에 맞게 알아서 하면 되지만 어쨌든 거절한다는 뜻 자체는 직접적으로 표시를 해야 한다.

간혹 이러한 거절을 도저히 못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럴 땐 주선자에게 부탁해서 대신해서 전해주는 방법을 쓰면 된다. 주선자라면 그런 연락을 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기도 하고 어쨌든 그렇게나마 거절의 뜻을 전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나마 나은 방법이다.

혹은, 그것조차 못한다면, 그 사람의 연락을 지속적으로 안읽씹하거나 읽씹하는 방법도 있다. 위에 있는 방법들 보다는 별로지만,^[26] 어쨌든 상대방은 조금 늦지만 자신이 거절 당했다는 걸 알게 된다.^[27] 아예 상대방의 프로필을 차단하는 방법도 있는데, 차단은 확실한 거절의 뜻이긴 하지만 상대방이 모욕적으로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상대방이 엄청난 진상짓을 한 게 아닌 이상 피해야 한다.

상대방에게 거절의 뜻을 보이는 게 너무 미안한 나머지 지나치게 돌려서 거절의 뜻을 표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는 **상대방에게 괜한 희망고문을 줄 뿐만 아니라 주선자도 욕 먹게 하는 행동이므로 지양해야 한다**. 대표적으로 답장을 늦게 하는 방법이 있다. 위에서 말한 것처럼 차라리 계속 답장을 전혀 안 하는 게 낫다. 답장을 늦게하는 식으로 하면 상대방은 매 답장을 기다리게 된다. 상대방 입장에서 자신이 바빠서 그런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뿐더러, 사귀는 사이도 아닌데 답장이 왜 그렇게 늦냐고 따지기도 어렵다. 가끔 "요즘은 답장이 느리시네요" 라고 대놓고 물어보는 경우도 있는데, 그 때 "제가 요즘 바빠서요"라고 대답하면 상황은 더 나빠진다. 그 사람은 "아 역시 요즘 바빠서 그랬구나"라고 생각하며 아직 희망이 있다고 생각하게 되기 때문이다. 갑자기 말투를 딱딱하게 바꾸는 것 역시 상황에 따라서 상대방이 그게 거절의 뜻이라는 걸 알아채기 어렵기 때문에 지양해야 한다. 특히 원래부터^[28] 연락을 잘 안 하거나 말투가 무뎡뎡한 사람들이 간혹 있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거절의 뜻으로써 사용하는 건 절대 좋지 않다.

더 나쁜 경우로, 첫 만남 이후로 애프터 약속을 잡고 나서 그 애프터 약속을 뒤늦게 취소하거나 온갖 핑계를 대면서 계속해서 미루는 경우도 있다.^[29] 심지어 거절의 뜻을 정말로 못하는 사람은 만남 약속을 약속 당일날 취소하는 경우도 있다. 이정도까지의 경우라면 주선자가 **손절**할 정도로 민폐가 되는 행동이니 정말로 지양해야 한다.

명심하자. 만약 당신이 소개팅이 익숙하지 않아서 어떻게 거절의 뜻을 해야 할지 모른다면 그건 상대방도 마찬가지다. 당신에게 호감이 있는 상대방도 소개팅에 익숙하지 않다면 뭐가 거절의 뜻인지 잘 모를 수도 있고, 관계에 있어서 최대한 **행복회로**를 돌

리면서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 **가장 빠르고 직접적으로 거절의 뜻을 전달해주는 게 가장 상대방을 배려하고 가장 덜 미안한 방법이다.**

▽ 5. 소개팅 애프터

소개팅 이후의 두 번째 만남을 소개팅 애프터라고 부르며, 이 애프터를 두세 번 이상 반복해야 고백할 타이밍으로 이어질 수 있다. 사실 소개팅 한 번에 바로 연인 관계로 이어지는 경우가 드문 만큼 **이 애프터야말로 소개팅의 최대 난관**이라 할 수 있으며, 어찌어찌 첫 만남을 무사히 마친다 해도 애프터를 반복하는 과정에서 파토날 확률이 엄청나게 올라간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문서로.

▽ 6. 기타

단체로 하는 소개팅의 경우 남자들과 여자들이 서로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경우가 흔하다. 모든 남녀가 **금수저** 집안 출신에 **대학교**는 **명문대** 출신에 **군대**는 **장교** 출신에(남자 한정) **직업**은 **공무원**, **대기업**, **전문직** 등에 종사하는 그런 경우인데, 직업이 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가령 A는 현직 공무원인데 공무원의 장점^[30]을 열심히 설명하고, B는 현직 대기업 사무직 직원인데 사무원의 장점^[31]을 열심히 설명하고, C는 현직 전문직(의사/변호사 등)인데 전문직의 장점^[32]을 열심히 설명하는 그런 식으로... 엘리트 남자와 엘리트 여자들이 모인 단체 소개팅 자리에서는 서로간에 매우 날카로운 신경전이 벌어진다.

일본 교토대에서는 소개팅을 연습할 수 있는 **로봇**을 만들었다. 상대방의 대화에 동조해 웃을 수 있는 기능이 탑재되었다.

⇒ "소개팅 연습용으로 딱"...**日 교토대, 웃는 리액션 로봇 개발**

▽ 7. 관련 문서

- 남자친구
- 여자친구
- 연애
- 맞선
- 온라인 데이팅
- 소개팅어플, 소개팅사이트

파워링크 광고



대림역렌트카 렉스렌터카

sirent.net

무료 배회차, 전차량 열선, 씨트, 핸들, 섀루프, 불박, 정품3D네비, 24시간 친절상담

도도렌터카대림역렌트카

www.dodocar.co.kr

평일파격할인, 네비게이션매립, 차차보험가입가능, 무료배회차대림역렌트카

광고등록

대림역렌트카, 렌트투어 강남

knrentacar.co.kr

마세라티, 포르쉐, 벤츠, 아우디, BMW 수입차 사고(보험)대차, 24시상담! 무료딜리버리

[1] 중국과 일본 등 아시아권 국가들도 소개팅이 있긴 한데 한국만큼은 아니다.

[2] 굳이 주선자를 고르자면 소개팅 앱이 주선자 같은 역할.

[3] 다만 공무원의 경우 좀 다른데, 국가직은 7월부터 연수 및 입사가 시행되고, 지방직은 10월부터 연수 및 입사가 시행된다.

- [4] 2010년대 후반 이후 비혼주의 확산으로 인해 여자 쪽이 남자 쪽 외모가 본인 수준 이상이 아니면 쳐다보지도 않고 사적인 대화를 할 수 있는 기회조차 주지 않는 경우가 많이 늘어났다. 이에 키크급으로 이쁠 수록 키크급 남자만 찾게 되어 자만추 확률이 떨어지게 됐다. 다만 이런 여자는 키크급 남자하고만 소개팅 하므로 큰 기대하지 말 것
- [5] 대학생은 제외 자만추를 할 수 있는 시간과 돈이 넘쳐나서 소개팅에 큰 관심 갖지 않는다. 매력 있는 여대생이 소개팅에 나오는 건 직장 다니는 남자를 만나거나 젊음을 무기로 본인 스펙보다 높은 남자를 만나기 위함이다.
- [6] 최근 비혼주의 확산으로 보편화 되었다. "시간이 없으니 너랑이라도 결혼해야겠다." 같은 문화는 없고 본인 스펙에 맞는 사람을 찾을때까지 기다린다.
- [7] 남성: 취업~33세, 여성: 취업~31세.
- [8] 처음 만나고나서 그 다음 만나는걸 에프터라고 부르며 보통 에프터 3-4회쯤 한쪽이 고백하고 다른 한쪽이 받아드려서 사귀게 된다.
- [9] 특히 동성친구의 애인이 해주는 소개팅은 주의해야 한다. 예를 들어 본인이 여자인데 동성 친구의 남친이 주선을 해준다면, 그 남친보다는 못한 사람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너무 잘생긴 사람을 소개해 줬다가 나중에 커플 데이트라도 하게 되면 자신이 비교되기 때문이다.
- [10] 여자친구 문서로.
- [11] 그런 식으로만 대화를 이어 나가면 상대방에게 사전 정보 수집을 밝히지 않더라도 충분한 의심을 사기 쉽다.
- [12] 약속 시간이 되지도 않았는데 먼저 상대방에게 연락해서 일찍 와있다는 티를 내선 안 된다. 첫인상부터 부담을 주기 딱 좋은 행동이기 때문. '먼저 와있구나' 정도의 인상을 주는 정도가 괜찮고 그 정도는 먼저 앉아있으면 상대방이 느낀다. 정보 수집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일찍 와 있는 것을 소개팅을 위해 준비했다는 증표 삼아 자랑하는 실수는 피해야 한다.
- [13] 연애초보가 생각하는 데이트코스 - 카페, 영화관 주변, 시내는 사실 엄청 시끄럽다. 팁을 주자면 개인이 운영하는 분위기 좋은 카페 같은 곳
- [14] 단, 덕수궁 돌담길은 커플이 같이 걸으면 반드시 깨진다고 유명한 곳이다. 왜냐 하면 길 자체가 너무 길어서 걷다가 지친 나머지 애꿎은 서로에게 짜증을 내기 쉽기 때문이기도 하고, 이 길 끝에 사이가 나쁜 부부가 이혼 절차를 밟고자 방문하기도 하는 서울가정법원이 있기 때문에 생긴 미신 때문이기도 하다. 대체로 여자가 구두를 신고 오기 때문에 걷기 힘든 곳은 피하자 오르막, 내리막, 돌길 등등 오르막은 일반적으로 잘 올라가지만 오르막이 있다면 필연적으로 내리막이 나오고 내리막은 구두굽이 높다는 가정하에 걷기 힘들다 앞으로 파당 할 확률 대폭 상승
- [15] 바지보다는 치마가 유리하다.
- [16] 예시로는 힙합 패션, 등산복 등이 있다.
- [17] 예전 넷상에 돌던 사례 중, 대기업에 종사하는 남성의 일화가 있는데, 소개팅을 하러 갈 때 상대가 여성 공무원이었는데, 오후에 부서 등산을 가야 한다고 등산복을 입고 오는 바람에 기가 안 찬다고 푸념한 사례가 있다.
- [18] 물론 여자 입장에서는 두번 다시 먹이기 싫는데 밥을 얻어먹으면 쓸 데 없이 부담된다고 하여 더치페이를 하려는 여자도 있으니, 남자입장에서는 여자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해서 반드시 그린라이트인 것은 아니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 [19] 국내 및 해외여행, 공부, 운동, 음악연주 및 감상, 미술회화 및 감상, 드라이빙 등.
- [20] 좋아하는 음식, 좋아하는 동물, 좋아하는 식물, 좋아하는 영화 등.
- [21] 특히, 갓 성인이 돼서 처음 소개팅을 하는 사람들이 이런 상황에 잘 대처하지 못하는 경우가 자주 생긴다. 어린 사람과의 소개팅을 꺼리는 사람들이 가끔 있는 이유가 이런 것 때문이다.
- [22] 그렇기 때문에 비단 소개팅에서뿐만 아니라 **미팅**, **헌팅** 등에서도 거절을 할 거면 확실하게 해야 한다.
- [23] 그 사람을 앞으로도 계속 만나야 되기도 하고, 그 사람이 자신에게 호감을 표한 게 아닌데도 자기 혼자 착각한 것일 수도 있기 때문.

[24] 드물게 연인은 아니지만 친구나 지인 사이로 남는 경우도 있지만, 이런 경우는 말 그대로 드물다.

[25] 자신과 잘 될 생각이 없다는 걸 알아야 상대방은 빨리 마음을 포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애매하게 질질 끈다면 그 사람은 그 사이에 그 사람에게 새로 들어온 소개팅 제의를 "아직 만나는 분이 있다"라는 이유로 거절했을 수도 있다.

[26] 그 사람에게 답장이 오기를 계속 기다릴 수도 있기 때문

[27] 이 때 중요한 것은, 한 번 읽씹이나 안읽씹을 하기로 결심했다면 계속해서 그걸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상대방이 아직 자기가 거절당했다는 걸 모르고 추가로 더 연락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때 또 다시 답장을 하게 되면 상대방은 희망의 끈을 놓치 못하게 된다.

[28] 심지어 소개팅에서 만나서 서로 알아가는 단계에서조차 상대방에게

[29] 혹은 첫 만남 이전에 연락하는 단계에서 상대방이 마음에 안 들면 그 첫 만남을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다.

[30] 안 찢리고, 정년보장이 지켜지고, 호봉제로 인해 연봉이 올라가는 등.

[31] 돈을 많이 벌고, 복지 혜택이 훌륭하고, 동종업계로의 재취업이 매우 쉽다는 등.

[32] 돈을 많이 벌고, 그 누구한테도 간섭받지 않고 자유롭게 일할 수 있고, 늙어 죽을 때까지 평생 일할 수 있다는 등.



이 저작물은 [CC BY-NC-SA 2.0 KR](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sa/2.0/kr/)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라이선스가 명시된 일부 문서 및 삽화 제외)
기여하신 문서의 저작권은 각 기여자에게 있으며, 각 기여자는 기여하신 부분의 저작권을 갖습니다.

나무위키는 백과사전이 아니며 검증되지 않았거나, 편향적이거나, 잘못된 서술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무위키는 위키위키입니다. 여러분이 직접 문서를 고칠 수 있으며, 다른 사람의 의견을 원할 경우 직접 토론을 발제할 수 있습니다.



namu.wiki | [Contáctenos](#) | [Términos de uso](#) | Operado por umanle S.R.L. | Hecho con <3 en Asunción, República del Paraguay

Su zona horaria es Asia/Seoul | Impulsado por *the seed engine*

This site is protected by reCAPTCHA and the Google [Privacy Policy](#) and [Terms of Service](#) apply.
This site is protected by hCaptcha and its [Privacy Policy](#) and [Terms of Service](#) apply.